



8 사도마을 '술 취한 은행나무'

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 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해져오고 있다.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는 이유다.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 확인해가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고흥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 가는길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술 취한 은행나무' 설화가 깃든 사도마을은 은행나무는 집중호우에 쓰러져 화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마을사람들은 소생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고흥(전남)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마을 안녕·풍어 기원 600년 넘은 은행나무 옛날 옛적에 그 나무 아래 마주친 술장수 둘 서로 술 팔아주며 허탕 친 하루 위로하기도

2011년 집중호우에 쓰러져 명을 다했지만 마을사람들 소생 기원하며 바로 세워놔다고

2011년 7월9일 오전 4시.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에 사는 유정순(여, 69) 씨는 '뽕'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 천정이 무너지면서 흩터미가 밀려드는 소리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유 씨는 땀발로 집밖으로 뛰쳐나갔다. 방안은 깨진 유리로 뒤덮였다. 이웃들은 "은행나무가 뽑혀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덮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유 씨는 유리를 밟고 뛰어 나왔는데도 다친 곳 하나 없었다.

유정순 씨의 집을 덮친 은행나무는 600여 년 전부터 마을 언덕에 서 있었다. 이날 집중호우에 쓰러진 후 유 씨 집터에 다시 세워져있다. 화생 불가능 상태지만, 마을사람들은 소생을 기원하며 나무를 바로 세웠다. 그만큼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다.

기록에는 조선 성종 22년(1491)에 사도진을

설치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진다. 마을사람들은 "기록엔 600년이지만, 1000년은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오랜 세월만큼 나무에 깃든 설화도 있다.

●막걸리 장수와 동동주 장수가 수지맞던 날

먼 옛날, 막걸리 장수가 이른 아침 술 한 동이 지고 술 팔러 나섰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한 사발도 팔지 못했다. 날은 덥고, 다리는 아프던 막걸리 장수는 술 곳을 찾아 아릅드리 은행나무를 발견했다. 술 짐을 벗어 놓고 불거진 뿌리에 걸터앉은 막걸리 장수는 땀에 젖은 저고리를 풀어헤쳐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침 나무의 수천 개 이파리들이 부채처럼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또 다른 술장수가 나무 그늘로 들어왔다. 동동주 장수였다. 그 역시 이른 아침 나섰지만, 아직 한사발도 팔지 못한 상태였다. 두 술장수가 같은 처지를 한탄했다. 쉬다보니 막걸리 장수는 술 생각이 났다. 제 술은 팔 것이라 차마 먹지 못하겠고, 동동주 장수에게 얹힌 한 뉘를 주고 한 잔을 샀다. 동동주 장수가 큰 사발에 술을 따라 건넸다. 막걸리 장수가 한 술에 들어갔다.

동동주 장수도 마을이 동했다. 마침 술 한 잔 팔아 얹힌 한 뉘 생겼으니, 그걸로 막걸리 한 잔을 살 수 있었다. 동동주 장수는 막걸리를 맛나게 마셨다. 그런데 막걸리 장수는 술 한 잔으로 양이 차지 않았다. 되돌려 받은 동전으로 다시 동동주를 샀다. 동동주 장수 역시 술 한 사발 팔아 한 뉘이 생기니 또 마을이 동했다. 그 자신도 막걸리 한 잔으로는 양이 차지 않던 차에 막걸리 장수의 술 넘기는 소리까지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막걸리 장수에게 한 톨 건네고 한 잔을 샀다.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다 보니 두 사람은 어느새 친구가 되었다. 하루 종일 서로 한 뉘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나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만났겠소. 나무 덕분이니 나무에게도 술 한 잔 줍시다."

두 사람은 이 모든 게 은행나무 덕분이라는 생각에 막걸리 한 사발과 동동주 한 사발을 넘치게 따라 나무뿌리에 부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주거나 받거나 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술동이를 다 비웠다.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은 나란히 술 한 동이씩 다 팔았겠다. 돈 한 톨 안 들고 술 한 동이씩 마셨으니 이런 황제가 없었다. 서로 빈 술동이를 짊어지고 기분이 좋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쳤다.

"오늘 수지맞아서 장사도 잘했으니 다음에 또 봅시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은행나무도 술 기운이 올라 가지들을 위로 뽐어 땀방울을 흘렸다.

은행나무는 원래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했다. 직경 3.2m에 높이가 15m, 수관폭은 29m에 이르렀으니, 그만큼 이 은행나무가 만들었던 그늘도 넓었다. 천년을 굶어온 나무는 이제 사실상 고목이 되었지만, 후사를 남겼다. 이 나무가 애초에 섰던 언덕에는 현재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는 대를 이어 마을에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고흥(전남) |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 설화 참조 및 인용: '술취한 나무' 김미승, '고흥군 설화 동화' 중

? 설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인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빠따’만큼이나 위험한 ‘오리걸음’



운동선수들 신체 접촉 없는 체벌도 위험 근육 파열되거나 관절 연골 손상 가능성 그나마 '손들기'나 '투명의자'가 더 안전

"마음 같아서는 바로 '빠따'라도 치고 싶은데."

축구국가대표팀에 합류한 김남일 코치가 인터뷰에서 선수들을 향한 심정을 드러내며 했던 말이다. 이후 "세월도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다"고 물려졌지만 적어도 불과 10년~20년 전에는 '빠따'로 대변되는 체벌이 너무나 당연히 자행되었음을 드러낸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정부주도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됐다. 이후 체벌이 교육의 수단인 아닌 폭력이라는 인식

도 확대됐다.

하지만 얼마 전 휴대전화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투명의자' 자세로 서 있게 한 초중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전지에는 유죄가 후자에는 무죄가 선고된 걸 보면 모든 체벌이 지난 시절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체벌은 방법에 따라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분된다. 직접체벌은 김남일 코치의 '빠따'처럼 도구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시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간접체벌이란 접촉 없이 명령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소위 '투명의자'나 '오리걸음'으로 불리는 체벌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판결에 미루어 짐작하건데 직접체벌은 가혹행위라고 인정되는 반면 여전히 간접체벌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체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또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겠지만,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 간접체벌 역시 직접체벌만큼이나 무척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근육통 때문에 병원에 좀 다녀본 사람이나,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등장성운동과

등척성운동이란 용어를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등장성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면서 힘을 내는 동적인 운동을 말한다.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등 움직이면서 받는 체벌들이 등장성운동이다. 등척성운동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힘을 내는 정적인 운동을 말한다. 손들기, 엎드려뻥쳐, 투명의자, 누워서 다리 들기 등 움직이지 않고 받는 체벌이 여기에 속한다.

등척성운동은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하므로 수술 뒤 초기 재활운동에 활용된다. 힘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는 등장성운동이 유용하다. 등척성운동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또 움직이는 체벌을 받게 되면 굼뻐졌다 퍼졌다하는 과정에서 관절 연골의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근육이 수축이완되는 과정에서 근육에 무리가 가서 근육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횡문근의 근육세포가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어 혈액으로 유출돼 간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횡문근 응해증도 유발한다.

물론 등척성운동도 횡문근 응해증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나마 덜 위험한 간접체벌은 등척성운동인 손들기, 엎드려뻥쳐, 투명의자,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이다.

실제로 이들은 병원에서 추천하는 운동들과 닮았다.

엎드려뻥쳐는 요즘 유행하는 코어 운동 풀 플랭크 자세와 비슷하다. 풀 플랭크는 엎드려 뻥쳐하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내려 머리부터 다리까지 몸이 일직선이 유지되도록 해 코어 근육(등, 복부, 엉덩이, 골반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법이다. 투명의자는 허벅지와 허리를 단련시켜주는 기마자세나 운동법에 가깝다. 누워서 다리 들기는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땅에 붙인 발바닥으로 지지 역할을 한 뒤 반대쪽 다리의 무릎은 편 상태로 허벅지에 힘이 느껴지도록 45도 정도 들게 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퇴 사두근 강화운동과 유사하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 등척성운동의 자세 역시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만약 어깨와 손목에 문제가 있다면 엎드려뻥쳐자세가 안전할 리 없다.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의자 자세가 독약이 될 수 있다.

2002년 롯데의 이대호가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고 그 시즌에 뛰지 못하게 된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오리걸음은 등장성 운동으로 무척 조심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몸은 각자 다른 약한 부위를 가지고 있다. 운동은 그런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세가 비슷하다고 해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이 운동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대호의 실력이 만개하게 된 시점은 2006년으로 체중감량을 위해 통소에 들어가 운동과 식이요법에 매진한 뒤였다고 한다. 결국 오리걸음은 평생 느끼게 될 무릎통증 외에는 아무 효과를 남기지 않은 것 같다.

다시 김남일 코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인터뷰 이후, 직접적인 그의 발언에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한다. 축구대표팀의 최근 실적을 보고 실망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혹시나 그 환호 속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을까 염려된다. 체벌은 운동이 아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구적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학대행위일 뿐이다. 적어도 각종 고통에 신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매일 접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렇다.